

신춘문에 당선작

드레스 룸은 현관 바로 옆에 있었다. 케이 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셀프 카메라 사진에서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던 바로 그 곳이었다. 다행히 밖으로 뚫린 창이 없었다. 문이 난 쪽을 제외하고 벽 세 개가 죄다 전신히 비치는 거울로 되어 있었다. 어두운 거울 속에 멀거니 서 있는 세 개의 인영을 발견하고 무서워진 정혜는 얼른 문 근처 벽을 더듬어 불을 켰다. 따뜻하고 노리끼리한 색깔의, 화장실에서 주로 쓰는 백열등 빛이

었다. 그녀는 아쉬운 대로 사진을 찍어 두기 위해 휴대폰을 열었다. 카메라를 켜고 드레스 룸 여기저기를 꼼꼼히 촬영했다. 화질이 나빠서 걱정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왔다. 노이즈가 점점이 박힌 사진은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예스런 맛이 있었다. 사진을 찍고 나니 때마침 정확히 자정이었다. 액정에 출력된 0자 세 개가 어쩐지 굉장히 좋은 진조처럼 느껴졌다. 정혜가 싱글볼을 웃으며 불을 끄고 방 밖으로 나왔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온전히 배어 있는

부츠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다

다. 사람을 예뻐 보이게 하는 조명이었다. 거울 속 유달리 매끈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혜는 케이 가 이곳에서 주로 셀카를 찍는 이유를 짐작했다. 거울이 없는 쪽 벽에는 커다란 2층으로 된 커다란 행거가, 방 가운데 빈 공간엔 옷가게에서나 쓰는 고급 유리 선반에 가방과 모자, 선글라스 따위가 단정히 놓여 있었다. 전부 그가 즐겨 착용하는 것들이었다.

얼마 후면 부모님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들은 정혜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리라. 그녀는 두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마지막으로 대화할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는 것조차 어려웠다.

엄마는 이른 오전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엔 이십 사 시간 분식집 주방 도우미를 했다. 명절이고 주말이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피곤했다. 집에 오면 이를 뺨뺨뺨 갈며 자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다.

아빠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혜도 알지 못했다. 한 때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생산직 일을 했는데, 제작년 정리해고를 당한 후부터는 공사장이나 공장 일용직을 떠도는 모양이었다. 신경질적이고 무뎠직한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다정한 성격이었다.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떡볶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군것질거리를 정혜의 손에 쥐여주며 말하곤 했다. 우리 딸, 말상대 하나 없이 날마다 외롭지. 동생 하나 낳아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혜는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다고 답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동생이 갖고 싶었던 적도 없었고 부모님이 일을 줄이고 집에 있어줬으면 한 적도 없었다. 사실 정혜는 자신의 외로움을 즐기는 편이었다. 외롭다는 단어가 주는 서글프면서도 안락한 느낌이 그녀는 좋았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외롭고 싶었고, 그렇게 고독하기를 꿈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지니는 제대로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은 절대로 외로움을 좋아할 수 없다고.

-너도 언젠가는 외롭다는 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그럼 분명 지금 한 말을 후회할 걸. 그리고 외롭지 않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대화창에 올라온 지니의 말을 보면서 정혜는 정말 외로움을 싫어한다면 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따지고 싶었다. 제대로

하는 섹스를 자랑했던 것처럼 지니는 제대로 된 외로움을 은근히 뽐내고 있었다. 지니가 정혜를 무시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로 억울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자긍심을 존중해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다만 확실한 외로움에 대해서 오래도록 생각했다. 그녀는 외로움과 전쟁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과 맞붙어 승리할 자신도 없었다. 설령 외로움을 자신의 삶에서 내모는 데 성공할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따라서 정말 지니의 말처럼 언젠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불사하는 날이 온다면,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백기를 들고 죽어 버리겠노라고 다짐했다.

어둠이 내린 거실을 잠시 둘러보면 그녀가 소파로 다가가 엉덩이를 털썩 내려놓았다. 샤워는 여전히 고요했다. 발코니 너머에서 쏟아지는 눈은 한층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바람이 제멋대로 불고 있는 모양이었다. 검은 도화지 위에 하얀 수채물감을 마구잡이로 흠뻑려 놓은 것 모양 하늘 끝이 잔잔했다.

감 자기 코끝이 간지러웠다. 약취, 약취, 약취. 정혜가 자기도 모르게 몇 차례 재채기를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옆집 쪽에서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살며시 귀를 대보았다. 혹시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도 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걱정스러웠다.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온 것만도 심각한 범죄인데, 물건까지 훔쳤다면 두말할 여지도 없었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이어지는 소리는 없었다. 하기가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재채기 소리가 새어나갈 만큼 방을 처리할 형편없이 했을 리도 없고, 설령 들렸다 해도 도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도둑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찰을 부르지 뽐을 누르지는 않을 터였다. 정혜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긴장이 풀려서지 목이 말랐다.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정혜의 입이 떡 벌어졌다. 냉장고 안에는 다른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통이나 물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식품과 음료수, 그가 좋아하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들이 종류별로 열을 맞춰 놓여 있었다. 자로 잰 듯 어찌나 정연하던지 살짝 소름이 돋았다. 참으로 케이의 냉장고다운 모양새였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건 케이에 대한 반역 같았다. 정혜는 다시 문을 닫았다.

마실 것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돌아서러니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다. 차라리 빨리 집에 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머무르고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위험했다.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힌 그녀는 혹시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자신의 행적을 꼼꼼이 되짚어 보았다.

정혜는 현관으로 다가가서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 나오니 벌써부터 추위가 느껴졌다. 최대한 신경 썼지만 밖이 워낙 조용해서 문 여는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잠시 멈춰서 채 눈만 깜빡이다가, 이번에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문을 닫았다. 피리리리링. 짧은 멜로디가 복도를 울렸다. 자동 도어락이 작동되는 소리였다. 순간 흥칫했지만, 조금 전 옆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도어락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너무 긴장을 해서 실재보다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라. 정혜가 애써 가슴을 누르며 계단 쪽으로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건물 뒤쪽 비상구로 통하는 계단이었다.

계단은 자동 센서 전등도 창문도 없어서 집안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하지만 경비가 지키고 있는 로비를 거치지 않으려면 이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어설픈 빛에 의지하여 더듬더듬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온몸이 오돌오돌 떨렸다. 서늘한 온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다. 올라올 때 케이의 집에 들어가 마음에 너무 들떠서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십 일 층 계단을 들리지 않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까마득했다. 몇 번이나 발을 잘못 디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참았다. 어떻게 왔지도 모르게 1층에 도착해서 층계 앞에 불은 쪽문을 열었다. 바깥바람이 와락 끼쳤다. 드디어 밖이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 나가서 담 하나만 넘으면 끝이었다. 그녀는 몰아치는 눈발 속으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갔다.

개나 소나 지가 서태진 줄 알지

어차피 짝퉁일 뿐인데

너나 사라져 버려. 너나...

- 거기, 너!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다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소리가 난 쪽을 흘끗 돌아봤다. 모자에 재킷까지 갖춰 입은 군청색 경비복과 허리춤에 찬 무전기 때문에 언뜻 경찰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껏해야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모자 밑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것이 나이도 꽤 지긋한 듯했다.

꽤 오래된 일인긴 하지만, 정혜는 진짜 경찰도 따돌려 본 적이 있었다. 연말마다 하는 가요 시상식 날이었다. 메이저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불청객들의 리더 윤과 색시한 이미지로 이미 탑 스타였던 가수 리에의 스퀘드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무렵이었다. 윤이 먼저 수작을 걸었다. 리에가 여유처럼 꼬리를 쳤네 실랑이를 벌이다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서로 밀쳐대기 시작하면서 몰싸움으로 번졌다. 한 때 '빠돌이와 빠순이'의 대

격전이라는 별칭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그 패싸움이었다. 정혜가 속한 불청객들의 팬은 모두 여자였지만 상대 쪽은 절반 이상이 남자였다. 정혜 패거리가 거의 일반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 속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우르르 나타났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허겁지겁 불렀다. 그녀는 경찰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 얼마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잡힌 이들 대부분은 훈방조치되었지만, 개중 주도자로 지목된 몇 명은 끌려가거나 씌어야 했다. 만약 붙잡혔다면 정혜 역시 거기에 속했을 것이다.

그날을 떠올리며 정혜가 호기롭게 돌아서 후다닥 달려박질했다. 눈 녹은 물이 확확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야!
남자가 호루라기를 불며 따라 불기 시작했다. 보기보다 몸이 짹했다. 제발, 제발, 잡히면 안 돼. 정혜는 얼굴을 구기며 미친 듯이 뛰었다. 눈 때문에 같이 너무 미끄러웠다. 게다가 어수선하던 예전 패싸움 때와는 달리 일대일 경주였다. 결국 담을 코앞에 두고 다리에 힘이 풀려 광당 미끄러지고 말았다. 정혜가 뒤를 바라보았다. 경비는 손 뻗으면 바로 잡힐 것 같은 거리에서 험레발떡 뛰오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달리는 그의 얼굴에서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아이, 씨발. 제발, 제발. 그녀는 후다닥 일어나서 담 위에 손을 얹었다. 몸에 힘을 주고 도움닫기를 하려는 순간 그가 정혜의 목덜미를 뺨아쳤다.
-너 뭐야?

그가 험악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도망갔어?
경비는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경비가 다그쳤다.

- 뭐야, 무슨 짓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들어와 본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싹싹 빌어 보기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짹짹 갈라졌다. 머리가 핑 돌았다. 정혜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여기서 무슨 짓 했어. 집 전화번호 대, 빨리.

경비는 정혜를 끈질기게 흔들며 물었다. 너 빠순이 맞지? 케이 찾아 왔지? 다 아니까 솔직하게 불러. 경비가 확확 고함을 질러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얼굴에 철관 깔고 목비권을 행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심장이 팔딱팔딱 빠른 속도로

로 뛰었다. 흡사 케이의 노래 속 드럼 반주 같았다. 쿵. 쿵. 쿵다다다 쿵. 쿵. 사라져버려. 쿵. 쿵. 사라져버려. 쿵. 쿵. 쿵다다다 쿵. 속이 울렁거리면서 난데없이 눈물이 뿜었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정혜는 양쪽 광대뼈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었다.

엘범 발표 직후 케이의 자작곡은 표절시비에 휘말렸었다. 노래에 사회 비판 메시지를 담았다는 새로운 시도라니 잘나 척하더니, 다 그렇지 뭐. 개나 소나 지가 서태진 줄 알지. 어차피 짝퉁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케이의 노래를 비웃었다. 너나 사라져 버려. 너나.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정식으로 활동한 곡이 아니라 기사가 뜨거나 케이 회자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저들은 케이의 페이스 북에 찾아와 끈질기게 댓글을 달았다. 니가 돈 써서 기사 막았지.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웃 사이더를 표방하다니 웅서할 수 없다. 너나 사라져 버려. 물론, 케이는 그런 글은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아쭈, 이 발랄 까진 년 보게. 웃어?
경비가 팔을 들어 올리더니 그녀의 뺨을 갈겼다. 눈앞에 번개가 번쩍 치면서 확 얼어 치밀어 올랐다. 정혜가 눈을 있는 대로 흡뽀고 그를 노려보았다.

-뭘 봐. 내가 게 눈앞에 힘주면 내가 무서워 할 줄 알아.

그가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정혜의 고개가 아래로 뒹고 구르러졌다. 흉당물에 엉망이 된 신발 끝이 시야에 들어왔다.

- 요즘 것들은 통 안팎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도 딱 너 같은 년이 있거든. 아무데서나 팔팔팔팔~ 집도 절도 없는 고양이 새끼들 같이.

경비는 빈정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뒤로 흔들렸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정혜는 고양이의 세게를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이 흔한 일인가 생각했다. 더불어 경비원이 입주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문득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 그만 때려. 개새끼야.
그리고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다. 정혜는 모자 아래로 빠져나온 경비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와락 달려들었다. 그의 모자가 광중에서 팽그르르 돌며 저쪽으로 날아갔다. 졸지에 신발이 된 현머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 경비가 욕지거리를 하며 정혜의 팔을 붙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렇게나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발음이 다 뭉개져 무슨 의미도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고성인 오갔다.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때아닌 난리에 B단지의 정적은 깨진 지 오래지만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옷과 얼굴에 흉당물을 잔뜩 묻힌 채 거지 꼴이 된 두 사람과 달리 로열 타운 건물은 앞마루 만큼 산뜻했다.

바람은 차고, 땅은 뜨거웠다. <끝>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얼굴 붉히지 않고 꿈 밝힐 수 있게 돼 감사”



당선자 김설욱씨

- ▲1986년 서울생
- ▲송의여대 문예창작과 졸업
-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 졸업

원고를 보내고 돌아오던 길이 생각납니다. 날씨는 흐리고, 거리에는 전날 내린 눈이 막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더듬더듬 걸으면서 ‘이제 그만 돌아가’ 하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이 큰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 꽤 꺼지치 말고 마음 접는 것이 어렵까.
뉴스에서는 기운이 올랐다는데 이상하게도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약을 먹고 잠깐 누웠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기척이 느껴져서 깨어보니 어머니께서 이불을 바로 덮어 주고 계셨습니다. 엄마야, 괜히 한 번 불렀더니 대답 대신 눈을 깜빡 감았다 쓰시더군요. 어둠 속에 조용히 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다 언젠지 모르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감기 때문이었을까요. 올해는 웬일로

원고를 보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지냈습니다. 긴장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당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낯설었는지...네, 네 소리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니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장난 전화는 아닌가, 문제가 생겨서 취소되는 건 아닌가. 당선 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고 얼얼할만 기분입니다.
누가 “무슨 일 하세요?” 물어올 때, 한치의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없이 “소설 씁니다” 하고 답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제 얼굴을 붉히지 않고 꿈을 밝힐 수 있게 되나 봅니다.
미숙한 제가 첫걸음을 뚝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해온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봐주시는 부모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송의여대와 서울디지털대학 선생님들께도 인사 올립니다.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이야기를 끌어가는 문장, 활력과 탄력 있었다

이야기를 뛰어넘는, 그러면서도 아프게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소설적 장치로서의 낯설이 부족하다. 기차여행과 고문기 술자와의 마주침 얘기가 기차의 두 선로처럼 서로 어울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슈게이징’은 어느 아이돌가수의 사생활까지 관습하고 그 속에 침입하는 극심



<정찬>

- ▲부산 출생
- ▲1983년 중편 ‘말의 탑’으로 등단
- ▲동인문학상, 동서문학상 등 수상
- ▲대표작 중편 ‘슬픔의 노래’, 소설집 ‘베니소에서 죽다’, 장편 ‘광야’, ‘빌라도의 예수’, ‘유랑자’ 등



<이순원>

- ▲강원도 강릉 출생
- ▲1988년 문학사상에 단편 ‘낯달’로 등단
-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한우숙문학상, 호서문학상 등 수상
- ▲대표작 장편 ‘수색, 그 물빛 무늬’, ‘이들과 함께 걷는 길’, 중편 ‘은비령’, 단편 ‘첫눈’ 등